



“쓰레기도 제3의 자원이다”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

조익창 / 한국자원재생공사 총무과장

요즘 신문과 라디오 TV 등에서 쓰레기의 심각성과 재활용 문제가 거론되면서 부터 특히 여성단체 등에서 각종 캠페인과 더불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제3의 자원화(재활용) 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재활용에 관심을 갖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 같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재활용 문제가 전개되고 있다.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으나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매우 적은 편이다.

폐기물의 재활용이 저조할수록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오고 있는데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음으로서 부존자원을 고갈시킴과 동시에 외화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재활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처리비

용이 증감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쓰레기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에서는 많은 투자와 기술을 개발하여 소각처리 방향으로도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이렇게 재활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매립지안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것이며 또 재활용이 적으면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처리비용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생활환경에 직접 간접으로 오염의 피해가 증가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하여 자연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처리비용 절약, 매립지의 수명연장, 환경오염 피해감소등과 같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폐기물 재생 및 재활용 방법으로는 재활용을 고려한 상품디자인과 상품표시의 재활용 공장설립, 재활용품 전시회등을 실시하고 재생품에 대한 특혜제도 모색, 쓰레기의 자원화 장기 기본계획 수립, 쓰레기 재활용센터 운영을 생각하여 보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서의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규정의 강



화와 폐기물 재생업체에 대한 국고보조의 명문화, 폐기물 재활용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기 위한 법적 제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 환경처 산하에 정부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가 공공법인체로서 폐기된 자원의 재활용과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년 9월 11일에 공익사업기관으로 설립되어 전국에 8개지사과 60개소의 관리를 두고 220여대의 타이탄트럭이 전국의 동과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폐비닐(kg/30-70원) 농약빈병(개/30원) 폐품등을 주민에게 보

상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청주 재생공장으로 보내어져서 중간원료를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고 재활용이 불가능한것은 1톤당 10여만원의 소각비용을 들여서 무공해 소각처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활용에 더많은 관심을 갖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 버려지는 모든 폐기물을 자원화 할수 있는 공사로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쓰레기의 재활용 정책방향에 동참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오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 뿐이다. *